

MISSION ASIA

“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

미션아시아운동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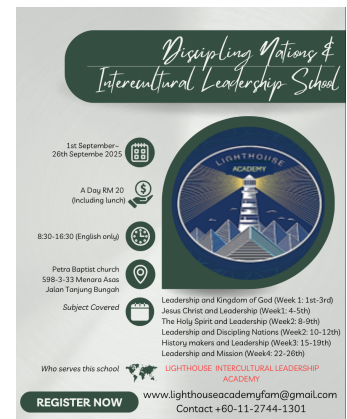
세계복음화 완성과 모든 족속 제자화를 위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개척선교를 이루고,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동 등, 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을 일으켜 파송하고 제자화하는 운동이다.

은혜 이야기

제가 섬기는 중국인교회에서 선교주간 설교를 10월 첫주에 가졌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사도행전 19:21-22으로 “로마도 보아야하리라”는 고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고백은 에베소에서 2년동안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치고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19:19)고 하여, 복음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저는 3차 전도여행에서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복음을 들은 것을 설명하고, 에베소 도시를 통해 주변 지역이 복음화된 것을 나누고, 로마에 가서 로마제국을 복음화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가 에베소처럼, 로마처럼 주변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도시가 되도록 도전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도시들은 0.6%, 0.8%의 기독교율이라는 것을 나눌때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는 6.3%로 어느 정도 교회들이 생겼지만 주변도시들은 미전도된 도시들이며, 땅끝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선교의 열정을 갖게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열방)

현장 이야기

Lighthouse Intercultural Leadership School(라이트하우스 타문화 리더십 학교)는 Lighthouse Intercultural Leadership Academy(라이트하우스 타문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설립된 다양한 초교파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미션 아시아 운동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사회 8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9월 1일부터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네팔 출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뉴커버넌트 국제대학교(New Covenant International University)와 협력하여 학점 인정을 받는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폐낭에서 이번 학기의 학교는 GMP가 주최하고 지원했으며,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9월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한국(베트남 선교사 자녀), 네팔 출신의 소중한 지도자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를 위한 리더십, 복음 전파를 위한 리더십, 그리고 넷째 주에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상담, 기도, 계획 수립, 아이디어 공유, 토론, 워크숍 개최, 그리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아시아에서 귀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4년 대학교 학위과정으로 다음 학기 LILS는 2026년 1월 18일~2월 7일 베트남 / 7월 18일~8월 8일 라오스 / 11월 8일~28일 폐낭에서 다시 훈련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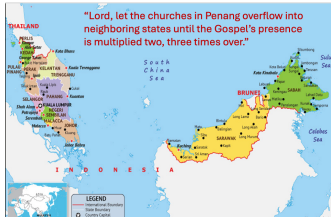
저는 마지막 주에 Mission Exposure 과정을 책임맡아 진



말레이시아 이야기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기독교율은 9%가 되

지만 대부분은 동말레이시아에 기독교인이 있



고, 서말레이시아에는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주가 6.3%이고 대부분은 2% 미만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트랑가누주는 0.3%, 켈라탄주는 0.4%, 페낭주와 가까운 빠렐리스주는 0.6%, 꺼다주도 0.8%입니다. 이렇게 낮은 기독교율이 있는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과 전도가 필요합니다. 동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이 선교의 부담을 갖도록 기도부탁합니다. (열방)

<기도제목>

1. 말레이시아인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돕기 위한 말레이시아인 선교사 네트워크가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인 선교사를 일으키기 위한 동원과 훈련과 말레이시아인 선교사들 9유닛을 섬기는데 멤버 케어들이 개발되도록, 말레이시아YWAM 선교사들을 위한 섬김이 더욱 개발이 되도록

2. 선교 사명자 학교를 월요일마다 진행합니다. 의사와 교사 중심으로 6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분들이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위원으로 섬기는데 잘 연구하고 자료로 잘 섬기도록.

5. 9월부터 동남아 선교지도자학교를 잘 마쳤는데 이후 훈련과 방문들로 아시아의 선교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6. 첫째 딸의 프랑스어 진보와 미래의 사역과 진로를 위해서, 둘째의 휴학기간 효과적으로 연구와 노동을 겸하도록, 셋째의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잘하고, 진로를 잘 결정하도록.

행했습니다. 강사들을 섭외했고 저도 2번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그리고 파트너십적 관점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와 지역 사회의 맥락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교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리더로 성장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는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열방>



소망 이야기

박복음선교사는 기독교 교육 세미나를 통해 교육의 성경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미나는 Educating for Life로서, 이미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치기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EFL)입니다. 성경적 원칙에 기반하여 참가자들은 교육에 대해 경험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이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열매 맺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2. 성경적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은 학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3. 학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서도 나타나고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4. 교육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세미나는 10월13일부터 3일간 1차를 가졌고, 이 과정을 통해 총 11명이 훈련생으로 참석했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실용적인 시간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11월에 2차 세미나를 진행하려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아시아의 교육에 성경적인 도전과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GMP 조셉목사님 글을 열방선교사가 정리하였습니다).



소망 이야기2

YWAM 페낭 베이스에서 노숙자들과 창녀들, 도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카완사역 빌딩을 구입하려고 3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42



만 링깃(1억 5천만원) 나머지 재정 후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1일에 바자회를 개최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15개의 음식 가판대에서는 40가지가 넘는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박복음선교사가 김밥 50줄을 새벽에 만들어 판매하여 헌금하였습니다. 2026년 3월까지 모든 재정이 다 채워져서 건물에 대한 잔금을 치루고 빚없이 도시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이미 3억이 넘는 재정이 채워져 중도금까지 치루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열방).

가족 이야기



첫째는 한국에서 있는 2025년 10월 13-16일까지 곤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있는 제 4회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여성사역자, 가족과 사역의 균형에 대하여 말하다”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썼던 글을 발표하고 함께 질의응답하면서 선교사자녀로서 본 여성사역자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이후에 한국에서 시간을 갖고 말레이시아로 10월 말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둘째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잘 받아서 지금 호주 멜버른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바로 일하던 식당에서 홀매니저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잘 따라가도록 기도해주세요.

셋째는 이번에 고 3학년이 되어 대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술분야와 다양한 진로를 놓고 기도중입니다. 12학년을 잘 마무리하도록, 다양한 시험과 포트폴리오도 잘 준비되도록 기도부탁합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10월 7일로 25주년 결혼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차도 마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에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열방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열방).

